

[사회]

수시 합격자 상당수 수능성적 미달 탈락

전남대 11.7%·조선대 10%

광주·전남지역 주요 대학의 2007 학년도 수시 전형 조건부 합격자들이 가운데 상당수가 수능 성적 미달로 탈락했다.

전남대는 2007학년도 수시 2학기 모집 전형 결과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해 탈락한 학생이 모집정원 2천 93명의 11.7%인 229명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전남대는 학생기록부 성적만으로 모집 정원의 3배수를 1단계 합격자로 선발했고,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해 1단계 성적 60%와 심층면접 성적 40%를 합산해 2단계 전형 합격자를 가린 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

지난해의 경우 광주캠퍼스 모집 정원 1천504명의 12.8%인 193명이 수능 성적 미달로 탈락했다.

조선대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1단계 합격자 가운데 462명(전체 10%)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해 불합격 처리됐다고 밝혔다.

목포대도 수능 1개 영역 우수자전형 응시자 64명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다.

한편 서울대의 경우 102명이, 성균관대의 일반학생 전형에 합격한 785명의 29%인 229명이, 이화여대는 모집 정원의 22%(190명 내외)가 각각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해 불합격 처리됐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아이들은 눈세상 신났는데...

17일 화순군 화순읍의 한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함박눈을 맞으며 눈사람을 만들고 있다. 광주·전남에는 이날 하루 4~10cm의 눈이 내렸으며, 18일에도 최고 5cm의 눈이 더 전망이다.

/화순=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전남 '大雪 비상'

출근길 혼란·농수산물 냉해·동사 등 우려

18일까지 광주·전남에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리고 아침 최저 영하 4도까지 내려가면서 도로가 얼어붙어 월요일 출근길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 또 강한 바람이 계속 불면서 항공기와 여객선의 결항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의 일선 지자체는 비닐하우스 붕괴와 농수산물 냉해·동사 예방을 위해 농어가에 주의를 당부했다.

◇출근길 정체 우려=빛고을로·무진로·하남로·동운고가도로·광양교 인근 도로 등이 결빙, 출퇴근 차량이 정체 현상을 빚을 전망이다. 광주시는 18일 새벽 5시부터 저상차 26대와 100여 명을 동원해 연화갈음·소금읍 살포, 혼란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17일에도 연화갈음 3천400포대(이하 25kg)와 소금 3천120포대를 뿌렸다.

한국도로공사 호남본부에는 50여 대의 제설차와 100여 명을 비상 대기시키고 있으며, 호남 및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수시로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

다. 눈으로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면서 광주·전남에서는 17일 하루에만 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항공기·여객선 결항 잇따라=17일 광주·전남에는 순간 최고 풍속이 초속 25.3m(완도)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하늘과 바닷길이 막혔다. 광주공항의 경우 광주~제주 노선(오후 2시20분) 등 10편이 결항했으며, 광주~김포 노선(오전 10시) 등 3편은 지연됐다. 여수공항은 여수~제주 노선(오전 11시) 등 6편, 목포공항은 김포 노선(오후 12시40분) 1편이 결항했다.

항공기의 경우 ▲옆바람(cross wind)이 초속 30노트(시속 55km·보잉 737 기준) 이상 불 때 ▲활주로 미끄럼 정도가 0.25(브레이크 제어가 안 될 때) 이하일 때 이착륙이 금지된다.

한편 목포항을 기점으로 하는 22개 항로 160여 척의 전 여객선 운항이 모두 취소됐고, 여수항도 거문도 등 3개

노선 6척의 발이 묶였다.

◇농작물 관리=폭 10m·길이 20m 비닐하우스의 경우 50cm의 눈이 쌓이면 30t의 하중을 받게 된다. 비닐하우스는 보통 27cm 이상 눈이 쌓이면 무너지므로 수시로 눈을 쓸어내려 줘야 한다. 비닐하우스 지주목을 강화하는 등 강풍과 폭설에 대비해 구조 자체를 보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축산농가에서는 갑작스런 전선사태에 대비하고, 급수장치가 통과 되지는 않았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양식장 관리=돌 종류는 영하 8도 이하의 날씨에서는 동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비교적 수온이 높은 곳으로 가두리 양식장을 옮겨 설치하거나, 따로 마련된 월동장으로 옮겨야 한다. 또 보온을 위해 비닐하우스 등을 씌운 내수면 양식장들은 지주대를 강화하는 등 시설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임주형기자 jhljm@kwangju.co.kr

출날리는 눈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해안 지방에 한때 눈이 오겠다.

12월 18일 (음 10월 28일) ◇전국날씨

광주	구름조금	-4~6℃
전남	구름많고 눈	-2~5℃
전북	구름조금	-1~7℃
충청	구름조금	-2~7℃
경상	구름조금	-6~6℃
강원	구름조금	-4~7℃
제주	구름조금	-5~7℃
서울	구름조금	-4~7℃
대전	구름조금	-6~6℃
대구	구름조금	-3~5℃
부산	구름조금	-3~7℃
인천	구름조금	-5~6℃
울릉도	구름조금	-7~5℃
독도	구름조금	-4~5℃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5~3.0m
남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2.0~4.0m
남해북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2.0~4.0m
목포 밀물 < 12:50 썰물 < 05:25
여수 밀물 < 07:49 썰물 < 00:58

▲해돋이 07:35 ▲해질 17:23 ▲달돋이 05:15 ▲달질 15:11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9(화)	20(수)	21(목)	22(금)	23(토)	24(일)
날씨						
최저/최고	-2/8	1/8	2/8	0/9	2/9	3/10

조선대 교수 42% 승진 탈락

'직급 정년' 현실화

올해 조선대 교수 가운데 승진 대상자의 42.2%가 승진하지 못하는 등 전국 4년제 주요 대학 교수의 승진 탈락률이 학교에 따라 최고 7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철밥통'로까지 통했던 교수사회에서도 제때 승진하지 못하면 물러나야 하는 직급 정년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교수신문이 최근 주요 4년제 대학의 2006년 승진 탈락 현황을 조사해 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승진 대상 교수 2~3명에 한 명꼴로 제때 승진을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선대의 경우 승진 대상자 102명 가운데 59명만 승진해 탈락률이 42.2%를 기록했다. 아주대는 승진대상

자 72명 중 21명만 승진해 탈락률이 70.8%로 가장 높았다.

연세대는 137명의 대상자 가운데 58명만 승진하고 57.7%인 79명은 떨어졌다. 성균관대는 126명 중 45.2%인 57명이 승진을 못했다.

고려대는 승진 대상자 120명 가운데 17.5%인 21명이, 경희대는 115명 중 27%인 31명이 승진을 못했다.

서울대의 경우 올해 승진 대상자 194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193명이 승진했지만 부교수로 승진한 66명 가운데 7.6%인 5명만 정년보장심사위원회를 통과해 정년을 보장받았다. 반면 전남대는 심사 연기자를 제외한 승진 대상자 59명 모두가 승진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압수 게임PC, 정비후 저소득층에

대검 마약조직범죄부는 17일 "지난해 말부터 검·경 합동으로 실시한 사형성 PC방 단속 과정에서 몰수한 PC 3만2천833대를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PC 보급 사업을 벌이고 있는 정보통신부에 기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3만2천833대의 PC 중 법원에서 몰수가 확정된 3천15대

를 우선 기증한 뒤 나머지 PC도 확정판결이 나는 대로 정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무상 보급된 PC는 그동안 펜티엄III급이었으나 사형성 게임장에서 도박게임에 사용된 PC는 양질의 펜티엄IV급이어서 소외계층의 정보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대설주의보는?

대설특보는 예상 적설량과 지역·시간대 등을 기준으로 대설 예비특보와 대설주의보·대설경보 등으로 나뉜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신적설(新積雪)이 5cm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진다. 하루 동안 내린 눈이 5cm 이상 쌓이는 상황을 가정해 발령되는

24시간 5cm 이상 눈 예상될 때 발령

것이다. 대설경보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평지는 신적설이 20cm, 산간지방은 30c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된다. 대설경보는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후속조치로 내려지거나,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발효될 수도 있다. 현재 1cm의 눈이 쌓여

있지만 짧은 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신적설이 20cm를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면 주의보 없이 경보를 발효한다. 대설 예비특보는 지금은 눈이 내리지 않아도 24시간 이내에 대설특보 발효 가능성이 있을 때 발령한다. /이승배기자 lsb54@

나주서 1500년전 용관 출토

청동검·토기 함께...학계 비상한 관심

나주시 왕곡면 화정리에서 5세기 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길이 2m60cm, 폭 1m 규모의 중형 용관(사신)이 출토돼 고고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8일 문중 묘지를 이장하던 주민에 의해 발견된 이 용관은 동시대 박물관 팀의 발굴조사결과 1천500여 년 전인 5세기경에 제작됐으며, 금제장식이 없는 소박한 형태의 청동검(劍)과 토기 등이 함께 출토돼 반남과 다시 고분 주인공들의 지배를 받았던 토착세력으로 추정되고 있다.

용관은 술이나 물을 담는 용기인 '유공구수호'로, 죽은 시신을 용관 속에 넣고 입구를 갓돌로 막은 것으로 추정된다.

동시대 이정호 교수는 "이 지역 고분에서는 주로 부장품으로 도(刀)가 출토됐으나 이번에는 청동검(劍)이



출토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나주시는 18일 오후 2시 발굴현장에서 유적과 출토유물들을 공개하고 '마산고분 발굴현장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고장 영광원전 2호기

39시간만에 가동 재개

고장으로 일시 가동이 중지됐던 영광원전 발전소 2호기(95만kW급)가 지난 16일 밤 11시를 기해 가동을

재개했다. 영광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지난 15일 오전 8시 26분 증기발생기인 수위 제어 카드 이상으로 원전 2호기 가동이 중지된 지 39시간 만에 수위 제어 카드를 교체하고 과거부의 승인을 얻어 밤 11시 가동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이제 나랑 함께 보살피자

탄소 섬유난방 바닥재 출시!!

최고의 난방 효율을 자랑하는 탄소 섬유난방 바닥재 출시!!

● 17%의 에너지 절약
● 100%의 내구성
● 100%의 안전성

● 100%의 친환경성
● 100%의 내구성
● 100%의 안전성

Blue III

문의: 02-522-0117

토익 만점 기록 11회 대행진!

최소출석률 70%이상 이수하여 학원 조성은 우수 장학 혜택!

목표점수까지 무한반복수강!

- 890점 만점반
- 800점 목표반
- 680점 목표반
- 초등중학생반

동아외국어학원

예술의 거리 → 중영초등학교 후문 사거리 입구 ☎02-222-6253